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오염수 21차 방류 종료 >

☐ 도쿄전력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21차 방류를 7월 24일 금요일 오후 12시 2분경 종료하였습니다.

☐ 이번 21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94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66~243베크렐(Bq)로, 방류 기준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이하였습니다.

* 측정·확인용 탱크에서 이송된 오염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되는 장소

☐ 이어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세부 데이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남재현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81건과 834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다시마, 한치 등 18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1,117건을 선정 하였고, 1,11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진행중) 국내산 바지락, 개조개, 고등어 등 7개 품목

○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4년 1월 26일 이후 총 347건을 선정하였고, 34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진행중) 중국 아귀 1개 품목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 방어 등 22건, 러시아 명태·가자미, 미국 가자미, 대만 다랑어 등 14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습니다.

* 기준: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입항한 선박 81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울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제주 중문색달·함덕, 충남 대천·만리포 등 20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5개 지점, 서북해역 7개 지점, 서중해역 8개 해역, 동북해역 7개 지점, 동중해역 8개 지점, 남서해역 15개 지점, 서남해역 15개 지점, 남중해역 3개 지점, 제주해역 12개 지점, 원근해 2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 134는 리터(ℓ)당 0.067베크렐(Bq) 미만에서 0.09 베크렐(Bq)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ℓ)당 0.072베크렐(Bq) 미만에서 0.092베크렐(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ℓ)당 6.0베크렐(Bq) 미만에서 7.0베크렐(Bq)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7~<0.09Bq/L, (^{137}Cs) <0.072~<0.092Bq/L, (^3H) <6.0~<7.0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정아 사무처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 2. 오염수 21차 방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 >

□ 이번 21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94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방류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Bq)이었습니다.

○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l)당 166~243베크렐(Bq)로, 방류 기준치인 리터(l)당 1,500베크렐(Bq) 이하였습니다.

* 측정·확인용 탱크에서 이송된 오염수가 해수와 만나 희석되는 장소

○ 다음으로, 방사선감시기 측정 결과, 해수 취수구에서는 3.4~6.2cps, 상류수조에서는 3.4~5.4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1~5.4cps가 측정되어, 21차 방류가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9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678~15,182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도쿄전력이 21차 방류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인근 3km 이내 해역 10개 지점 및 10km 이내 해역 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 3km 이내 1개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1회 검출*되었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 0~3km 해역 삼중수소 검출(1회) 농도 14Bq/L
- **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

< 3. IAEA 10차 확충모니터링 >

- IAEA는 지난 7월 9일 열 번째 확충 모니터링*을 진행 하였습니다.
 - * IAEA 주관하에 제3국의 분석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도록 하여 IAEA 모니터링 체제의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
- 이번 확충모니터링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스위스 및 IAEA의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해수배관헤더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 향후 각국 분석기관은 직접 채취한 시료들을 각각 분석 하여 결과를 IAEA에 제출합니다.
- 이후 IAEA는 일본과 각국 기관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 우리 정부는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빈틈없이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 4.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2023년 8월 오염수 방류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오고 있습니다.
- 우리 전문가는 21차 방류 기간 중 두 차례 IAEA 현장사무소와 원전 시설을 방문(7.15, 7.16)하여, 방류설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등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① IAEA 현장사무소 방문

- 먼저,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 21차 방류 기간에 정기적으로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방출목표치(1,500Bq/L)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이 22차 방류 대상 오염수 시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②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 설비와 시설의 상태 및 방류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 확인 결과, 순환·이송펌프, 오염수 유량제와 유량조절 밸브 등 설비의 상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5.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우리 정부는 다음 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 우리 전문가는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IAEA 측으로부터 22차 방류 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